

宋詩의 政治性

— 王安石의 詩를 中心으로 —

李 炳 漢 (서울大學校文理大)

中國文人들의 傳記를 읽음에 際하여 우리는 매양 그들의 生涯를 통한 甚한 流浪의 記錄을 본다. 勿論 그 原因은 生活根據地의 移動, 仕宦期間의 自然스러운 轉任등 王當한 要因이 없지 않지만 大部分은 政治人으로서의 運命的인 要素가 많음을 發見한다. 反面 그들의 作品의 素材가 보다 豊富하고, 內面的인 苦悶과 葛藤으로 因하여 昇華되는 作品의 世界도 그만큼 眞摯히졌을 것도 짐작할 수 있는 바, 이는 바로 古代中國의 政治家가 곧 文人이오 學者요 思想家였으며, 文人, 學者 및 思想家가 바로 政治家였다는 循環的事實에서 오는 現象이라 볼 수 있다.

從來 中國에 있어서의 文人들의 第一義的인 意味에서의 政治에의 參與條件으로는 于先 科擧制度를 들 수 있는 바, 隋唐代에 이르러서는 文辭詩賦의 詠藻를 통한 文人政治의 기틀이 잡히었고, 宋代에는 詩賦가 登科의 絕對的인 要件으로 固定되었다. 그리하여 及其也는 宋代 一部學者 또는 爲政者들 自身이 이러한 方法의 人材登用制度가 實際政府의 需要와 符合되지 않는다고 指摘하고 이의 改革을 主張하기까지 이르렀다. 그러나 實相 宋代政治의 弊端은 考試制度(科擧)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었다. 對外的으로는 遼, 金 및 西夏와의 屈辱的인 外交關係를 비롯하여 開國以來 強力하게 施行해온 中央集權制度로 말미암아 中央官吏들에 依한 一般 僚生들의 收奪등 苟且하게 維持해오는 平和와는 달리 內外로 無力과 腐敗의 現象이 頗多하게 露呈되었다.

이러한 現實에 處하여 王安石(1021~1085)은 일찌기 스물 두살에 進士에 登第한 以後 地方官吏로 轉轉하면서 時政의 弊端을 痛感하고 이의 改革을 試圖하고 스물일 곱살에는 지금의 浙江 寧波인 鄞縣의 令으로 四年 동안 在任하면서 一部農民 經濟政策을 實行에 옮겨 成果를 거두기도 했다. 그리하여 王安石은 仁宗이 崩去하고 神宗의 即位와 함께 中央政府의 政策擔當者로 올라서면서부터는 過去의 經驗과 그 自身の 急進的인 政見을 土臺로 青苗均輸, 保甲, 免役, 市場, 保馬, 方田等 所謂 新法을 斷行하여 國運이 中興하는듯도 싶었으나 保守的인 政敵들의 強力한 反撥에 부딪쳐 끝내 所期의 成果를 거두지 못하고 挫折하고 만다.

王安石의 이러한 革新的인 政治理論과 아울러 宰相까지 累任한 그의 華麗한 政治家의 經歷으로 因하여 오늘날 一般人들은 王安石을 일핏 「新法」이라는 一種의

政治用語와 쉽게 連想하면서도 文人으로서 詩人으로서의 그의 참다 운또한 面을 忘却하기가 일쑤다.

王安石은 古文運動에 있어서 唐의 韓愈柳宗元 및 宋의 歐陽修, 三蘇, 曾鞏과 아울러 唐宋八大家中の 한 사람으로 併稱되며, 臨川先生全集의 詩 三十七卷 속에는 古詩 約 四百首와 律詩 絕句 約 一千首 都合 約 一千四百首의 詩가 收錄되어 있어 詩人으로서의 堂堂한 貫祿을 자랑하고 있다. 그러나 그의 文과 詩를 通讀함에 있어 우리는 또 그의 文學이 單純히 飾文雕句의 傳統的인 觀念에 立脚한 것만이 아님을 發見하게 된다. 이는 勿論 그 自身の 主觀에도 關係되는 것이겠지만 宋代全般을 支配하는 새로운 文學理論의 影響을 配合하여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宋代 文學家들은 그들의 作品 속에서 어느 理致를 主張하거나 說教調의 글을 쓰기를 좋아 하였다. 「文以載道」의 道學的인 文學의 傾向은 散文에만 나타나는게 아니고 宋人의 詩와 詞等에도 나타난다. 宋代文人들은 詩를쓰에 있어서도 「以 議論爲詩, 言理而不言情」이라 하였다. 散文에 있어서 宋代 文人들은 原則적으로 唐代 韓愈의 古文運動의 精神과 方法을 繼承하고 있으나 그들은 한 발 더 나아가 形式(文) 보다 內容(道) 이 더 重要하다고 認識하였다. 한편 宋代 散文과 詩歌 사이에 나타나는 興味로운 現象은 散文이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通學的인 影響의 增大로갈수록 平易하여지고 詩歌는 江西派의 勢力的 擴大와 並行하여 갈수록 博奧雕飾의 傾向을 띤다는 事實이다. 이러한 傾向의 端的인 例證으로는 詩文 共히 宋代 文壇의 大家로 일컬어지는 蘇東坡에 對한 王世貞의 評이다. 王世貞은 그의 藝苑卮言卷四에서 「讀子瞻文見才矣, 然似不讀書者, 讀子瞻詩見學矣, 然似絕無才者,」라고 말하고 있는 反面詩餘 또는 「稍近乎情, 宜于簸弄風月」이라하여 正統文學에서는 異端視되어온 宋詞가 오히려 發達할 수 있었던 時代的인 要因도 바로 中國文學史上 文學의 正統으로 君臨하는 詩. 文에 對한 宋代 文人들의 이러한 道學的인 文學觀에 緣由한다고 볼 수 있다.

앞에서 言及한 것처럼 王安石의 이름은 그의 文學보다 그의 政治論과 더 쉽게 連想이 되는 것이 事實이지만 王安石 自身 文學을 「務爲有補于世」하여야 한다고 主張하여 政治理念 達成의 하나의 工具로 보는 點도 있어 그의 文學은 당초理論부터 多分히 政治性을 띄고 있다. 「新法」施行이 政治家로서의 王安石의 生涯에 있어서의 大事件일 바에 果然 그의 文學이 그의 政治的 理念(道) 成에 어느단한 聯關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은 그가 主張하는 文學理論과 함께 생각할 때 쉽사리 어느 事實을 推定할 수 있는 問題이다.

王安石의 文章을 보면 大部分 政治 學術에 對한 論說文과 같은 느낌을 띠지 못하는 바, 그의 游褒禪山記, 傷仲永 等은 백성들이 自己意志의 實現을 爲해 盡力하

여야 된다고 主張하는 것이고, 上仁宗皇帝言事書, 答司馬諫議書 등은 그의 變法施行의 理論的 背景이 되는 것이며 特히 書刺客傳後, 讀孟嘗君傳 등은 過去의 歷史的人物에 對한 그의 關心이 깊었던 것을 엿볼 수 있게하는 文章들이고, 剛毅果斷한 그의 政治家의 風貌를 나타내는 글들이다. 材論에는 그의 平生의 懷抱가 描述되어 있다.

王安石的 詩 가운데, 兼並, 發廩, 寓言 등에는 그가 뒷날 靑苗, 均輸 諸法의 施行을 主張하는 根本思惱이 들어나 있고. 梁啓超가은 사람은 發廩, 兼並 등 詩에서 의王安石의 持說이 오늘날의 所謂 社會主義的 傾向을 띤 것이라고 評하고 있으며, 蘇東坡는 兼並을 읽고 「自古詩病未有若此酷深也」라고 評하고 있을 程度로 그 政治性이 濃厚하다. 感事에는 官吏들에 시달리는 農民들의 慘狀을 切切히 描寫하고 그들을 救濟하기 爲한 衷情이 거짓없는 것이지만 世人들의 沒理解를 慨嘆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맺고 있다. 美玉 一篇에는 全四十字에 不過한 小詩이지만 詩中에 當時 新法施行에 反對하는 歐陽修 司馬光 蘇東坡等 守舊黨 人士들을 美玉小瑕와 大賢小玷으로 比喻하여 그들에 대한 안타까움을 表示하고 그들이 끝내 反對한다면 理念 成就를 爲하여 不得已 強權行使도 不辭하겠다는 뜻을 隱然中 示唆하고 있다. 兩過 偶書, 歌元豐等 作品에서는 新法施行의 成果가 어느만큼 나타남에 따라 農民들과 함께 歲月을 즐기는 그의 得意가 엿보인다. 特히 兩過偶書에는 新法改革이 一端軌道에 오르자 後事を 委任하고 老年隱退의 希望도 아울러 나타나 있다. 그러다가 次韻鄧子儀에 보면 新法改革의 挫折로 因한 政治的失意, 志氣의 衰頹가 엿보이나 그래도 國家民族을 爲한 自己의 努力이 참다웠던 것이라고 덧붙여 所信을 굽히지 않고 있다. 그가 政界에서 隱退하여 鍾山에 蟄居하면서부터의 詩風은 政治的色彩가 적고, 雅麗胎俗의 맛이 있어 政治家가 아닌, 圓熟한 詩人으로서의 風貌가 若如하다.

如何든 宋詩全般의 特性의 經學思潮의 心性哲學的影嚮과 古文運動의 影嚮으로 論理性, 敘述性, 平靜性 및 生活과의 密着으로 概觀할 수 있다면 王安石的 詩는 그의 政治的抱負가 그만큼 雄大하였던 것과 相考하여 政治性이 짙다고 볼 수 있다.